

제 목	국 문	비만지표와 심혈관계질환 위험인자간의 상관성	
	영 문	Correlation between Obesity Indices and Cardiovascular Risk Factors	
저 자 및 소 속	국 문	하현영, 조진아, 김수근, 최보울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영 문	Hunyoung Ha, Jina Cho, Sookeun Kim, Boyoul Choi Dept. of Preventive Med., Hanyang Univ. College of Med.	
분 야	예방의학	발 표 자	하 현 영(전공의)
발표 형식	구 연	발표 시간	15 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1. 연구 목적

비만이 심혈관계질환의 주요한 발생 원인이라는 사실은 그 동안 많은 연구를 통하여 밝혀졌으며, 근래에는 비만의 정도 뿐 아니라 지방의 분포가 심혈관계질환의 높은 발생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개발된 비만지표들과 심혈관계질환 위험요인으로 혈청지질, 공복혈당 및 혈압 등과의 상관성을 조사함으로써 복부비만지표의 효율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 1) 대상; 1995년 11월에 한 운수회사의 운전기사 312명을 대상으로 공복 10시간을 지키며 심혈관계질환 설문지에 응한 246명을 최종대상자로 선정하였다.
- 2) 검사방법; 신장, 체중, 복부높이, 엉덩이 둘레, 허리둘레를 측정하여 신체비만지수(BMI)와 복부비만지수를 산출하였으며 혈압은 숙련된 간호사가 측정하였다. 혈중 총 콜레스테롤(TC)과 공복 혈당(FBS)은 효소비색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중성지방은 효소법중 글리세롤 비소거법,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은 침전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 연구결과

1) 연령의 증가에 따라 복부비만지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심혈관계질환 위험요인 중 혈중 총 콜레스테롤, 공복혈당 및 이완기 혈압이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 음주, 흡연 여부에 따라 복부비만지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고, 심혈관계질환 위험요인 중에서는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만이 음주 여부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3) 비만지표간에는 모두 의미 있는 상관성이 있었고 신체비만지수(BMI)와 ADI(abdominal diameter index)가 0.376으로 가장 낮은 상관성을 보였으며, SD(sagittal diameter)와 SDH(sagittal diameter/height)는 0.971로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4) 비만지표와 심혈관계질환 위험요인과의 상관성을 보면 혈중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과는 음의 상관을 보였고 공복혈당과는 상관성이 가장 낮았으며, SD와 SDH는 모든 위험요인과 상관성이 있었다.

5) 연령, 음주 및 신체비만지수를 보정한 후 비만 지표와 위험요인과의 상관성을 본 결과 SD는 혈중 총 콜레스테롤 및 공복 혈당과 상관성을 보였다.

6) 40세를 기준으로 2개 연령 군으로 분류 후 음주여부와 신체비만지수를 보정하여 상관성을 조사한 결과 40세 미만 군에서는 혈중 총 콜레스테롤과는 WHR, ADI, SDH 순으로 상관성이 있었다. 40세 이상 군에서는 비만지표와 혈중 총 콜레스테롤 및 공복 혈당이 모두 상관성이 없었다.

4. 고찰

이 연구에서 비만지표중 SD와 SDH가 심혈관계질환 위험요인과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연령, 음주, 흡연 및 신체비만지수를 보정한 후에도 심혈관계질환 위험요인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심혈관계질환 위험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복부비만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